2024.07.19.(금) 증권사리포트

LG이노텍
실적 상향 여력이 주가의 상승 여력
[출처] 하나증권 김록호 애널리스트
2Q24 Preview: 컨센서스 상회
LG이노텍의 24년 2분기 매출액은 4.64조원(YoY +19%, QoQ +7%), 영업이익은 1,454억원(YoY +689%, QoQ -17%)으로 전망.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하나증권의 기존 전망치를 각각 4.4%, 58.8% 상회하는 호실적 실적 상회의 주요인은 우호적인 환율과 광학솔루션 부문. iPhone 15 시리즈가 중국 내 프로모션으로 인해 출하량과 판매량이 양호했던 것으로 추정.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모듈의 출하량 증가로 인해 고정비 부담이 축소되며 수익성 개선 효과가 두드러졌음. 기판소재 및 전장 부품 부문은 기존 추정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을 전망

하반기 실적 상향 가능성도 상존
북미 고객사의 차기 모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하나증권의 차기 모델 전망치는 기존 모델과 동일한 수준의 출하량. 동일한 출하량에도 불구하고 LG이노텍 광학솔루션 매출액이 전년대비 증가할 수 있는 근거는 카메라모듈의 Blended ASP가 상승하기 때문 폴디드줌이 1개 모델에서 2개 모델로 확대 적용되고, 울트라와이드(초광각) 카메라의 화소수가 기존 12백만에서 48백만으로 상향될 것으로 추정. 이미지센서 공급 업체인 Sony가 올해 매출액 가이던스에서 고부가 제품으로 인한 믹스 개선을 언급한 부분도 이와 일맥상통 AI에 대한 반응이 양호하다면, 현재 출하량 전망치가 상향될 가능성도 상존. 한편, 신규 카메라모듈 공급업체가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LG이노텍의 점유율 변동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하이엔드 내에서의 입지 변화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실적 및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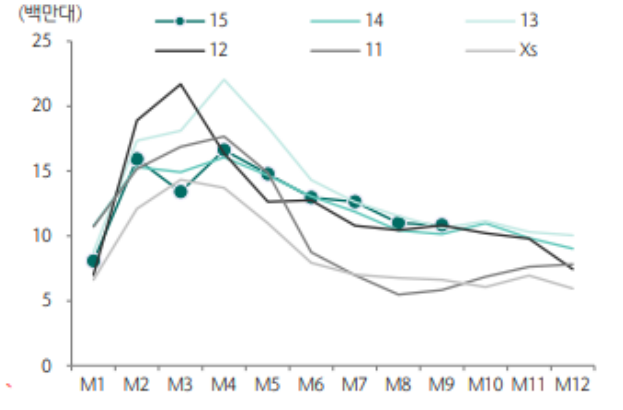
신규 모델 공개 전까지 3분기 실적 상향 모멘텀 유효
LG이노텍에 대한 투자의견 BUY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360,000원으로 상향. 2024년과 2025년 영업이익을 각각 7.7%, 0.01% 상향했고, 12개원 선행 EPS에서 2025년 비중이 확대되었기 때문 LG이노텍의 주가는 24년 1분기 실적 발표 이전에 연중 최저 수준이었고, 이후에 양호한 2분기 실적과 북미 고객사의 투자심리 개선에 따른 주가 상승에 연동되며 연중 최고가를 경신중. 주가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향후 실적 상향 여력이라 판단. 북미 고객사의 AI 관련 기대감이 형성되며 차기 모델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는 정황이 포착되었음. 이로 인해 LG이노텍의 24년 3분기 실적이 상향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판단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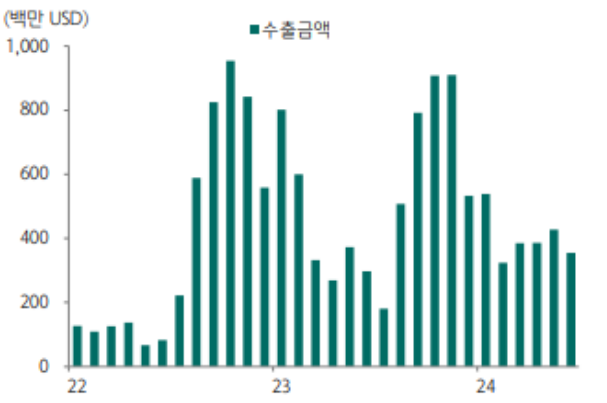
투자지표	2022	2023	2024F	2025F
매출액	19,589.4	20,605.3	22,491.3	23,015.7
영업이익	1,271.8	830.8	1,176.1	1,228.8
세전이익	1,135.1	639.3	1,129.2	1,184.7
순이익	979.8	565.2	891.1	912.2
EPS	41,401	23,881	37,652	38,545
증감율	10.31	(42.32)	57.67	2.37
PER	6.10	10.03	7.89	7.71
PBR	1.40	1.20	1.25	1.09
EV/EBITDA	3.44	3.75	3.14	2.77
ROE	25.85	12.59	17.28	15.14
BPS	180,255	199,217	236,660	272,595
DPS	4,150	2,610	2,610	2,610

도표 4. iPhone 출시 후 월별 판매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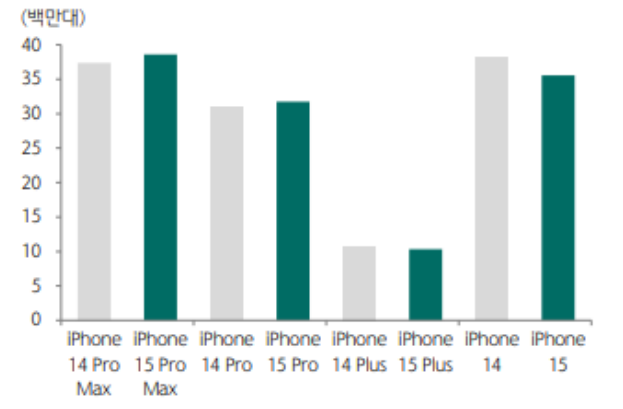
자료: Counterpoint, 하나증권

도표 5. 한국 카메라 모듈 수출 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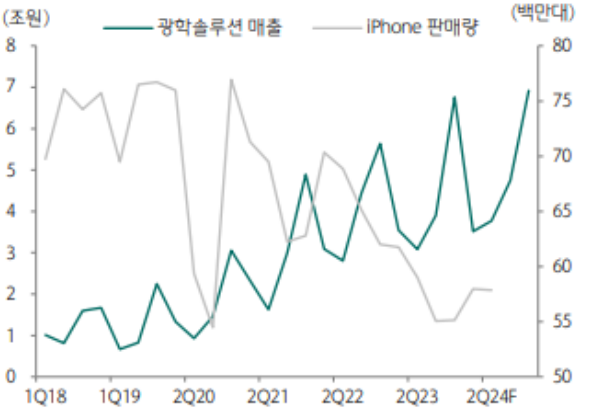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하나증권
주: 2024년 5월은 잠정치

도표 6. iPhone 모델별 출시 초기 9개월 누적 판매량



자료: Counterpoint, 하나증권
주: iPhone 14 Plus의 경우 출시가 1달 늦었기에 5개월 합산

도표 7. iPhone 판매량과 무관하게 광학솔루션 매출은 증가 추세



자료: Counterpoint, LG이노텍, 하나증권

종근당

2Q24 Pre : 단기 실적보다 R&D 가치에 집중할 것

[출처] DS투자증권 김민정 애널리스트

2Q24 Preview: 케이캡 영향 불가피

2Q24 종근당 별도기준 매출액 3,903억원(-0.5% YoY), 영업이익 286억원(-33.6%, OPM 7.4%)로 컨센서스 대비 영업이익 하회할 것으로 전망한다. 2Q23 당사 매출의 약 8.3%의 비중을 차지하였던 자누비아가 3Q23 특허만료로 인한 약가 인하 영향으로 매출이 큰 폭 하락하였으며 고수익제품 케이캡이 HK이노엔과 파트너십 종료되어 제외되었다. 펙수클루, 고덱스 등 다수의 신규품목을 통해 매출 공백은 최소화 하였으나 이익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여 이익추정치를 하향하였다.
2024년 연간 매출액은 1조 5,331억원(-7.1% YoY), 영업이익 1,068억원(-55.6%, OPM 7.0%)로 전망한다. 이는 4Q23 반영된 CKD-510 라이선스 아웃에 따른 Upfront 1,061억원에 대한 기저효과를 반영하고 있다. 단, 종근당의 이러한 역성장은 2025년부터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전망한다.

'25년 턴어라운드 by. 펙수클루의 고성장
원외처방액 기준 2Q24 펙수클루는 약 197억원을 판매하며 전년 동기 대비 약 40.3% 성장하였다. 이는 전체 소화성궤양용제 시장 내 M/S 약 6.0%, P-CAB 시장 내 M/S 약 29.8%로 시장점유율 역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약 1.5%, 약 2.9% 증가하였다.

R&D 가치에 집중할 순간
종근당에 대하여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45,000원을 유지한다. 종근당의 주가는 '23년 11월 노바티스 라이선스 아웃 이후 지속적인 하향세를 그렸다. 이는 실적이 우하향을 그리고 있으며 기전에 대한 PoC 입증이 아직 미비하며 구체적인 파이프라인 개발 방향성을 공개하지 않아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부여가 어려웠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종근당은 기술이전을 통하여 R&D 역량을 입증, 멀티플 할인 요소를 제거한 점을 감안하였을 때 현재 multiple은 저렴한 수준으로 판단한다. 연 내 Novartis R&D day에서 CKD-510의 개발 방향성이 공개된 이후 종근당의 파이프라인 가치가 인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Financial Data

(십억원)	2021	2022	2023	2024F	2025F
매출액	1,334	1,472	1,650	1,533	1,685
영업이익	94	107	241	107	127
영업이익률(%)	7.1	7.3	14.6	7.0	7.6
세전이익	77	100	237	114	127
지배주주지분순이익	39	83	209	98	111
EPS(원)	3,136	6,386	16,082	7,902	8,931
증감률(%)	-55.6	103.6	151.8	-50.9	13.0
ROE(%)	7.1	14.1	29.3	11.5	11.7
PER(배)	32.3	12.3	8.1	13.7	12.2
PBR(배)	2.1	1.5	2.0	1.5	1.4
EV/EBITDA(배)	11.4	7.5	5.4	8.2	6.8

자료: 종근당,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K-IFRS 연결기준

SK이노베이션

SK E&S와 합병 효과?

[출처] 유안타증권 황규원 애널리스트

SK E&S㈜ 흡수합병 발표

2024년 7월 17일, SK이노베이션㈜ 이사회는 에너지기업인 SK E&S㈜를 합병하기로 결정했다. SK이노베이션㈜이 신주를 발행해, SK E&S㈜ 1주에 1.19주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중요한 절차는 '8/1일 의결권 주주 확정, 8/27일 주주총회, 8/27 ~ 9/19일 반대주주의 매수청구, 11/20일 통합 SK이노베이션㈜ 신주 상장' 등이다. 참고로, SK E&S㈜는 연간 매출액 11조원(LNG발전소 52% 도시가스 46%), 평균 영업이익 9,000억원(영업이익률 8.1%)를 보이고 있으며, 자산 19.3조원, 부채 11.9조원, 자기자본 7.4조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합으로 순자산 30% 증가, 발행주식수 58% 증가

순자산, EBITDA는 증가하지만, 주당 순자산이 감소하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1) 지배주주 순자산 규모는 22.8조원에서 29.6조원으로, 30% 증가하게 된다. 자산과 순차입금은 각각 22%(86.4조원 → 105.7조원)와 18%(18.6조원 → 22.0조원) 증가하게 된다. 2) EBITDA 현금창출 능력은 3.4조원에서 5.2조원(SK E&S㈜ 1.8조원)으로, 52% 높아진다. 3) 통합후 SK이노베이션㈜의 발행주식수는 58% 증가하게 된다. SK E&S㈜ 교환을 위해 55,299,186주가 새롭게 발행되기 때문이다. 4) 순자산 보다 발행주식 증가폭이 높게 나타나면서, 주당 순자산은 △18%(238,156원 → 195,916원/주) 낮아지게 된다.

재무부담을 줄이지만, 주당 가치 희석은 불가피

2025년 합병이후 예상 실적은 매출액 81.5조원(합병전 70.5조원), 영업이익 3.1조원(합병전 2.2조원, 배터리 △4,747억원), 지배주주 순이익 1.3조원(합병전 7,619억원)으로 개선된다. 주주총회에서 승인되면, 재무부담 축소로 주가 방향에 긍정적일 것이다. 다만, SK E&S㈜ 합병으로 NAV(순자산가치)는 27%(19조원 → 23조원)으로 증가하지만, 발행주식수가 58% 증가하면서, 주당 적정가치(주가 눈높이)는 △10 ~ 20%로 낮아질 수 있다. 주주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Quarterly earning Forecasts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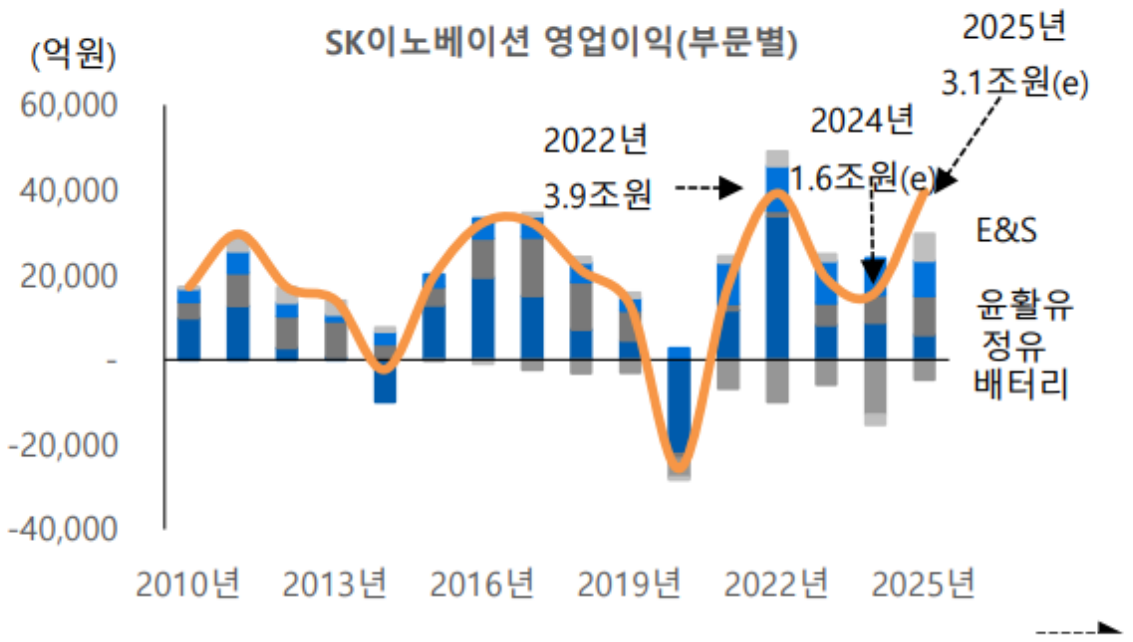
	2Q24E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컨센서스	컨센서스대비
매출액	179,164	-4.3	-5.0	193,989	-7.6
영업이익	-249	적지	적전	4,405	-105.7
세전계속사업이익	-3,979	적지	적전	1,487	-367.6
지배순이익	-2,186	적지	적지	1,456	-250.2
영업이익률 (%)	-0.1	적지	적전	2.3	-2.4 %pt
지배순이익률 (%)	-1.2	적지	적지	0.8	-2.0 %pt

자료: 유안타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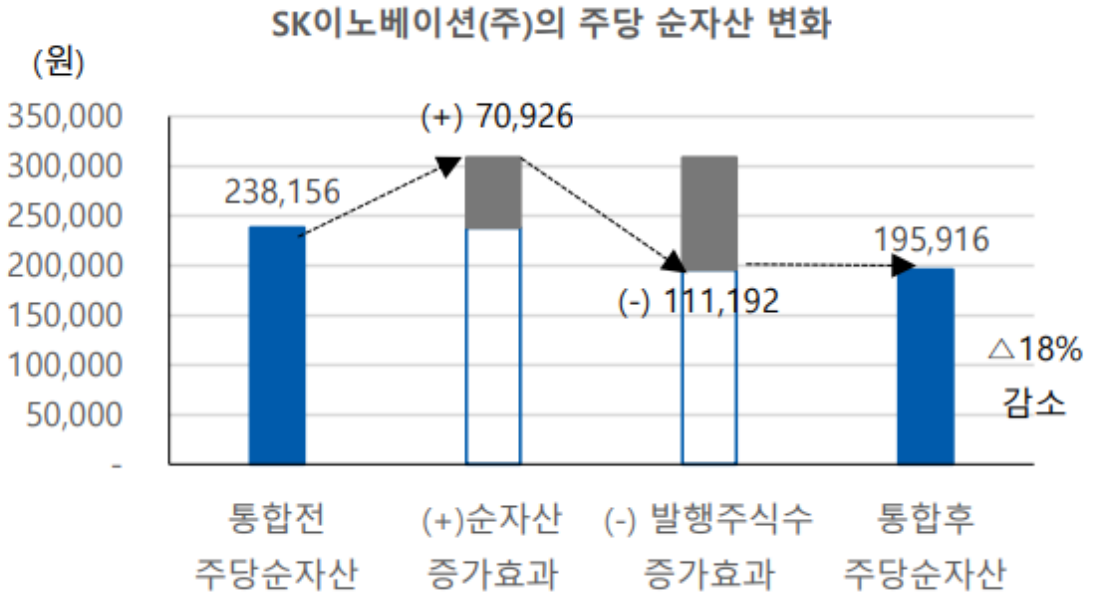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연결, SK E&S㈜ 합병전 기준) (억원, 원, %,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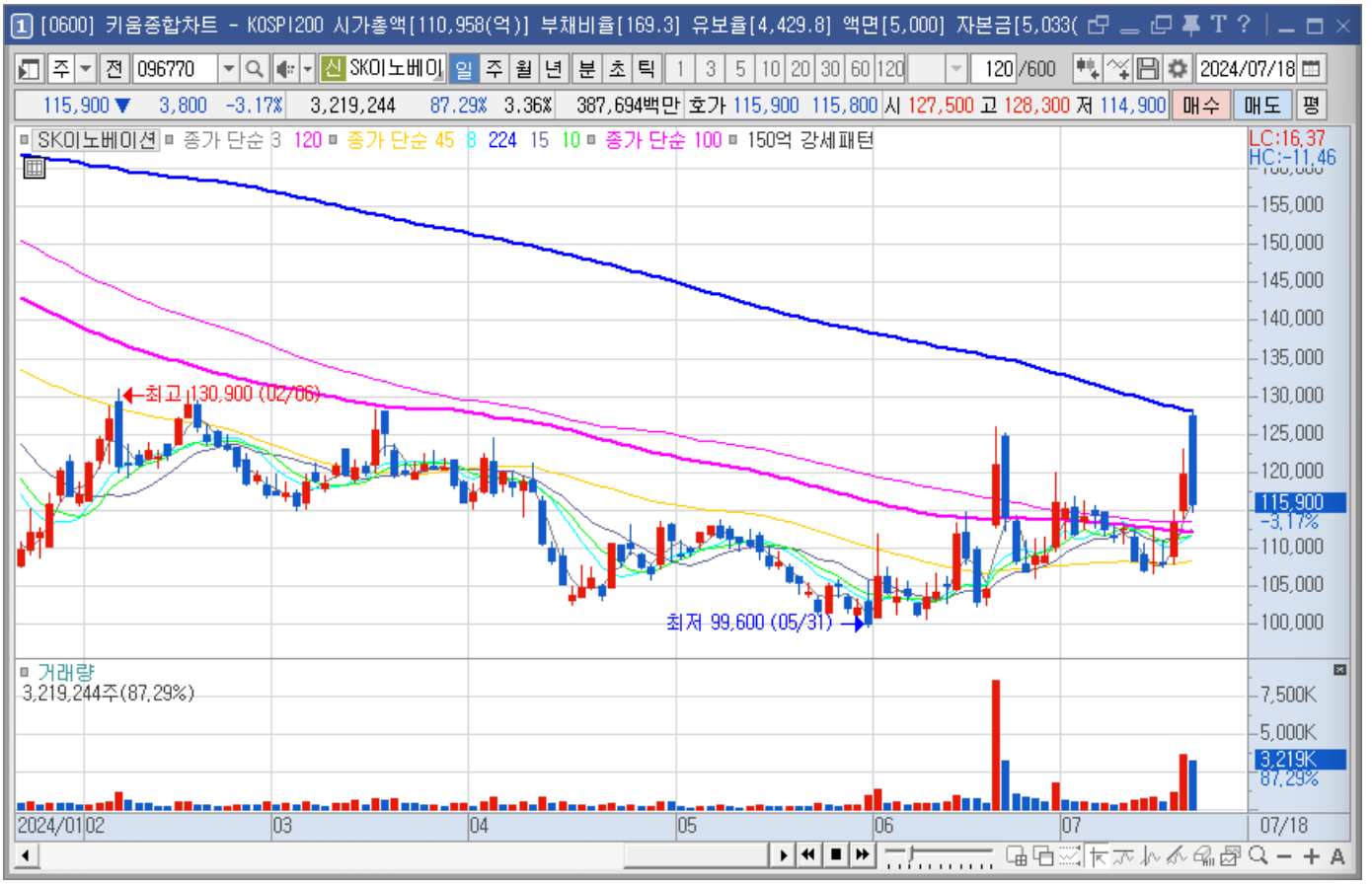
결산 (12월)	2022A	2023A	2024F	2025F
매출액	780,569	772,885	738,773	704,621
영업이익	39,173	19,039	15,840	21,717
지배순이익	15,690	2,563	702	7,619
PER	11.6	62.3	171.7	15.8
PBR	0.9	0.7	0.5	0.5
EV/EBITDA	6.7	12.4	12.1	11.2
ROE	8.5	1.2	0.3	3.3

자료: 유안타증권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제일기획

안정성은 훌륭, 필요한 것은 성장성 회복

[출처] 키움증권 이남수 애널리스트

2분기 영업이익 877억원 전망
2분기 매출총이익 4,325억원(yoy +1.8%), 영업이익 877억원(yoy +3.5%, OPM 8.7%)으로 컨센서스 부합을 전망한다. 부문별 매출총이익으로는 본사 957억원(yoy -5.7%), 해외 3,368억원(yoy +4.2%)을, 판관비는 인건비 증가로 3,449억원(yoy +1.4%)을 예상한다.
주요 광고주의 마케팅비 효율화로 광고 성수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한다. 높은 기저에도 비계열 성과로 본사의 방어가, 미주의 성장이 지속된 가운데 올림픽 특수를 통한 유럽의 반등, 중국의 실적 견조함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지역별 매출총이익은 북미 609억원(yoy +12.6%), 유럽 825억원(yoy +0.2%), 중국 955억원(yoy +1.0%) 등 고르게 선방할 것으로 판단한다.

하반기, 상반기 보다는 개선
주요 광고주의 마케팅비 효율화가 계속되기는 하겠지만, 파리 올림픽 스폰서십, 금리 인하 예상에 따른 매크로 변화, 비계열 영입 등으로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개선된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매출총이익 8,233억원, 영업이익 1,422억원, 하반기 매출총이익 8,944억원 영업이익 1,752억원을 각각 추정한다.
디지털 중심의 인력투자로 인건비 증가가 발생하고는 있으나, 디지털 부문의 매출총이익 개선에 따른 것으로 이익 훼손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디지털부문 매출총이익은 2020년 4,749억원에서, 2022년 8,153억원, 2023년 8,742억원으로 급성장하였다. 인력 선 투자에 따른 비용 증가 영향도 상반기 마무리되어 하반기 영업이익 트렌드는 견조할 것이다.

안정성은 훌륭, 필요한 것은 성장성 회복
2024년 매출총이익 1조7,177억원(yoy +6.1%), 영업이익 3,175억원(yoy +3.2%)을 전망한다. 디지털 사업 확대, 비계열 성장, 비용 효율화 등 내실 경영, 신사업 및 M&A 개발 등 과거와 변한 틀은 없다. 배당성향 60% 등 주주가치 제고 노력도 지속될 것이다. 실적 안정성에 기반하여 투자의견 BUY는 유지한다. 다만, 성장성 둔화로 목표주가는 12M FWD EPS 기준 Target P/E 11.9배(2021~2023년 하단 평균)를 적용하여 22,500원으로 조정한다.

투자지표

(십억원, IFRS)	2022	2023	2024F	2025F
매출액	4,253.4	4,138.3	4,248.5	4,405.8
영업이익	311.4	307.5	317.5	330.9
EBITDA	384.9	382.5	395.5	413.5
세전이익	300.4	284.8	311.4	327.6
순이익	195.8	190.1	214.1	225.4
지배주주지분순이익	193.7	187.3	210.9	222.0
EPS(원)	1,684	1,628	1,833	1,930
증감률(%,YoY)	17.1	-3.3	12.6	5.3
PER(배)	13.7	11.7	9.9	9.4
PBR(배)	2.19	1.70	1.50	1.38
EV/EBITDA(배)	5.8	4.4	3.7	3.4
영업이익률(%)	7.3	7.4	7.5	7.5
ROE(%)	16.6	15.0	15.8	15.4
순차입금비율(%)	-36.6	-40.7	-43.6	-46.1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세아제강
다소 부진한 영업실적, 장기적으로는 올해가 바닥일 것
[출처] 하나증권 박성봉 애널리스트

2Q24에도 지속된 내수 강관 시장 부진
2024년 2분기 세아제강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564억원(YoY -10.5%, QoQ +0.1%)과 281억원(YoY ?58.7%, QoQ -11.5%)으로 영업이익은 시장컨센서스 314억원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강관 수출은 전분기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수 부진 영향으로 전체 강관 판매량은 24.9만톤(YoY -1.6%, QoQ -3.5%)에 그칠 전망이다. 스프레드의 경우 내수와 수출 모두 전분기대비 소폭 축소된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제조업체들의 6월 열연 가격 인상 영향으로 내수 구조관 가격이 6월에 인상되기도 했으나 내수 배관재와 수출용 에너지용강관 가격 인상 지연이 전체 영업실적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3Q24 내수시장 비수기 진입
국내 제조업체들의 6월 열연 가격 인상에도 불구, 수입 열연 가격은 여전히 톤당 500불 중반 수준의 보합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내수 강관 시장은 비수기로 진입한다. 따라서 3분기에도 내수 강관 시장 부진이 지속될 전망으로 세아제강의 전체 강관 판매는 24.2만톤(YoY +9.5%, -2.8%)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전한 건설 경기 침체와 비수기를 감안하면 3분기에도 내수 강관 가격 인상 가능성은 제한적이라 판단되고 수출의 경우에도 북미향 물량 및 단가 모두 2분기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적으로 세아제강은 3분기에 279억원(YoY -31.7%, QoQ -0.6%)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이다.

투자의견 BUY 및 목표주가 220,000원 유지
세아제강에 대해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220,000원을 유지한다. 강관 내수시장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내년에는 국내 주택 착공 및 분양이 소폭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강관 내수시장 또한 올해를 바닥으로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수출의 경우 11월에 예정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대통령 당선 시, 미국내 화석연료 개발 확대에 따른 에너지용 강관 수요 회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시에 세아제강의 현재 주가는 여전히 PER 3배, PBR 0.3배 수준으로 올해 예상 ROE 9.3% 감안 시, 저평가 국면이라 판단된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2	2023	2024F	2025F
매출액	1,801.8	1,860.9	1,830.3	1,853.0
영업이익	215.2	231.9	128.0	166.6
세전이익	211.1	242.7	127.8	172.3
순이익	159.3	188.8	96.5	131.4
EPS	56,163	66,578	34,018	46,314
증감율	74.29	18.54	(48.91)	36.15
PER	2.31	2.07	3.99	2.93
PBR	0.44	0.39	0.36	0.33
EV/EBITDA	1.53	1.50	1.84	0.83
ROE	21.12	20.68	9.33	11.67
BPS	293,162	352,482	378,602	417,018
DPS	6,000	8,000	8,000	8,000

NAVER
더 나올 악재는 없다
[출처] NH투자증권 안재민 애널리스트
다양한 변화 시도
네이버에 대한 투자의견 Buy 및 인터넷 업종 Top-pick 유지. 모바일 첫 화면의 홈피드 개편과 AI 추천에 따른 개인화 서비스 제공, 숏폼 플랫폼 Clip의 고성장, 치지직 정식 서비스 론칭 등 긍정적 변화가 실적에도 반영되고 있음. 또한, 최근 주가를 눌렀던 LY Corp 지분 매각 우려는 일단락. 네이버를 둘러싼 악재들이 조금씩 해소되는 구간 진입. 수급도 많이 비어있는 만큼 주가는 반등을 모색할 것
다만, 목표주가는 기존 285,000원에서 270,000원으로 하향. 2024년 이후 실적 추정치 하향과 상장한 네이버웹툰의 가치를 시가 기준으로 변경하였기 때문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양호한 2분기 실적
네이버의 2분기 실적은 매출액 2.67조원(+10.9% y-y, +5.7% q-q), 영업이익 4,114억원(+10.4% y-y, -6.3% q-q)으로 영업이익은 기존 추정치 4,461억원 및 시장 컨센서스 4,328억원을 소폭 하회할 전망. 다만, 네이버웹툰 상장 관련 비용과 CEO 현금보상비용이 450억원 가량 일시적으로 반영될 예정
이를 제외하면 시장 컨센서스 대비 양호한 수준. 첫화면 홈피드 개편과 치지직 정식 서비스 오픈 영향으로 디스플레이광고가 회복하며 서치플랫폼 매출은 9,738억원(+7.0% y-y)을 예상하고, 커머스 매출은 7,206억원(+13.9% y-y)으로 선방할 것으로 추정.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비용 통제는 지속되고 있음. 마케팅비용 3,877억원(+1.1% y-y)으로 안정적으로 유지. 다만, 네이버웹툰 상장으로 인건비(7,270억원, +12.8% y-y)는 증가할 것

	2023	2024E	2025F	2026F
매출액	9,671	10,772	12,138	13,566
증감률	*17.7*	*11.4*	*12.7*	*11.8*
영업이익	1,489	1,803	2,120	2,440
증감률	*14.1*	*21.1*	*17.6*	*15.1*
영업이익률	*15.4*	*16.7*	*17.5*	*18.0*
(지배지분)순이익	1,012	1,580	1,678	1,930
EPS	6,180	9,727	10,331	11,886
증감률	*33.4*	*57.4*	*6.2*	*15.1*
PER	36.2	17.6	16.6	14.4
PBR	1.6	1.1	1.1	1.0
EV/EBITDA	17.6	12.1	10.2	8.6
ROE	4.4	6.6	6.6	7.2
부채비율	47.4	48.0	49.2	50.1
순차입금	-978	-1,739	-2,568	-3,684

단위: 십억원, %, 원, 배

덴티움
낮아지는 눈높이에 적응하기
[출처] 키움증권 신민수 애널리스트

중국 물량 부진, 러시아 납품 지연에 따른 하향 조정
2Q24 실적은 매출액 1,092억 원(YoY +2.6%, QoQ +32.0%), 영업이익 341억 원(YoY +5.2%, QoQ +77.2%, 영업이익률 31.2%)을 전망한다. 시장 컨센서스는 매출액 1,148억 원, 영업이익 372억 원이지만 하향 조정이 이뤄지고 있어 그에 맞는 눈높이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 2Q24 매출액 584억 원(YoY +2.0%)을 전망한다. 1Q23에는 VBP 신규 도입으로 인해 물량이 지연되며 YoY 역성장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수출액 데이터를 반기 기준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1H23 $55,762,691 → 1H24 $56,017,387(YoY flat)을 기록해 큰 폭의 매출액 성장세를 시현하기는 어려울 예정이다. 임플란트 제품 수요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덴탈 장비 판매량이 늘어나는 모습이 관찰되지 않고 있어 시간이 필요하다.
유럽: 2Q24 매출액 131억 원(YoY -14.4%)을 전망한다. $4M(약 55억 원) 규모의 러시아 출하 물량이 7~8월로 선적이 지연됨에 따라 2Q24 매출액은 감소할 것이다.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밀린 것뿐이지만, 6월에서 7~8월로 분기가 달라지면서 2Q24의 실적 눈높이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국내: 2Q24 매출액 230억 원(YoY +13.6%)을 전망한다. 경쟁사의 광고 모델계약 종료, 동사의 적극적인 TV 프로모션 내용이 겹치며 국내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중으로 추정한다.
비용에서는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측면에서 특이한 점이 없는 평이한 기조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한다. 재고자산평가손실 등 일회성 비용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해당 내용을 제외하면 2Q24 영업이익률은 30%를 상회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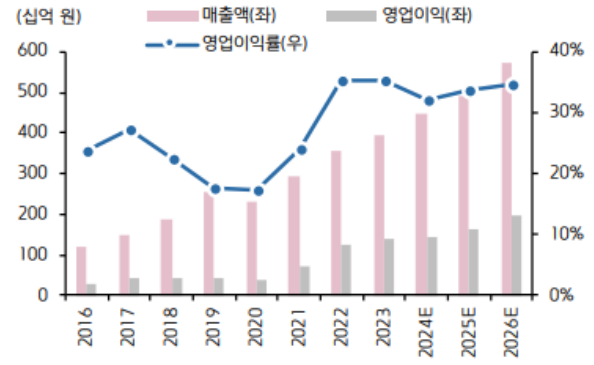
실적 전망치 감소에 따른 목표주가 하향 조정
선행 4개분기 EPS 전망치 10,186원에 목표 PER 14.1배를 적용하여 목표주가 140,000원을 제시한다(기존 160,000원 대비 -12.5% 하향 조정).
`24년 실적은 매출액 4,493억 원(YoY +14.3%), 영업이익 1,435억 원(YoY +3.8%, 영업이익률 31.9%)을 전망한다

투자지표

(십억 원)	2022	2023	2024E	2025E
매출액	355.9	393.2	449.3	490.4
영업이익	125.7	138.3	143.5	164.8
EBITDA	144.7	159.2	167.3	186.0
세전이익	118.4	134.5	142.3	165.3
순이익	86.1	96.5	111.0	129.0
지배주주지분순이익	86.1	96.5	111.0	129.0
EPS(원)	7,776	8,720	10,028	11,650
증감률(%,YoY)	55.1	12.2	15.0	16.2
PER(배)	12.9	15.0	10.5	9.1
PBR(배)	2.96	3.12	2.04	1.68
EV/EBITDA(배)	8.6	9.9	7.1	5.8
영업이익률(%)	35.3	35.2	31.9	33.6
ROE(%)	25.9	23.0	21.4	20.3
순차입금비율(%)	36.3	26.0	4.5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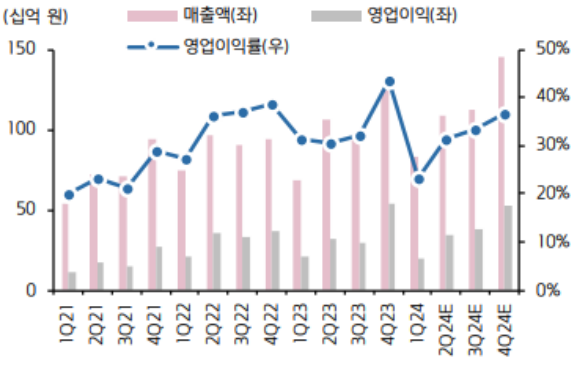
자료: 키움증권

덴티움 연간 실적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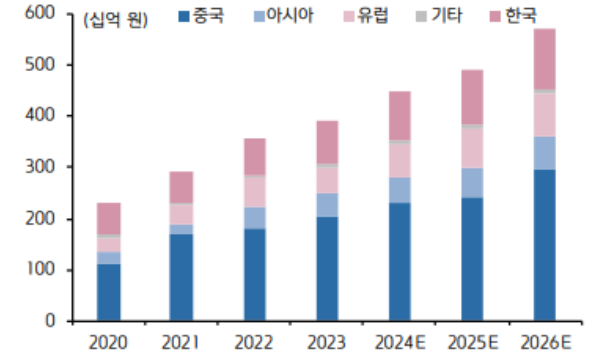
자료: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덴티움 분기 실적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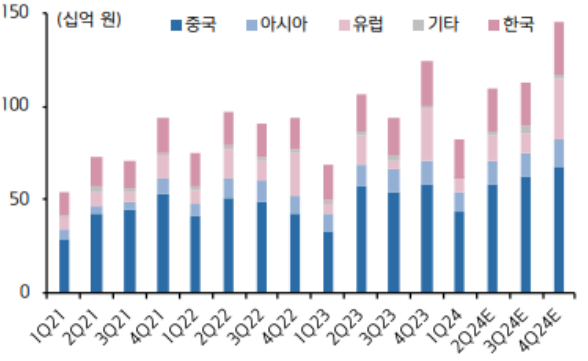
자료: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덴티움 지역별 연간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자료: 덴티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덴티움 지역별 분기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자료: 덴티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0600] 키움종합차트 - KOSPI200 시가총액[11,478(억)] 부채비율[66.8] 유보율[7,720.5] 액면[500] 자본금[62(억)]
145720
신 덴티움
103,700 0 0% 47,768 98.61% 0.43% 4,937백만 호가 103,700 103,500 시 104,400 고 104,500 저 102,300
매수 매도 평
덴티움 5 20 60 120 224 150억/500억봉 표시 강세패턴 약세패턴
최고 185,000 (06/02)
배당락(0.00%)
배당락(0.00%)
최저 53,200 (02/15)
LC:94,92
HC:-43,95
거래량
47,768주(98,61%)
2022
2023
2024
07/18

[0600] 키움종합차트 - KOSPI200 시가총액[11,478(억)] 부채비율[66.8] 유보율[7,720.5] 액면[500] 자본금[62(억)]
145720
신 덴티움
103,700 0 0% 47,768 98.61% 0.43% 4,937백만 호가 103,700 103,500 시 104,400 고 104,500 저 102,300
매수 매도 평
덴티움 증가 단순 3 120 증가 단순 45 8 224 15 10 증가 단순 100 150억 강세패턴
최고 148,500 (03/06)
최저 102,300 (07/18)
LC:1,37
HC:-30,17
거래량
47,768주(98,61%)
2024/01
02
03
04
05
06
07
07/18